IBM, 2020년 금융권 5대 기술 전망

서울, 2020년 2월 6일 – 2019년에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 도입 단계에 접어들었다.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고 사물인터넷 기술이 본격 도입되는 등 금융권 기술 도입 분야는 다양하게 확대되었다. IBM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금융, 보험, 그 밖의 금융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20년 금융권 기술 전망 5대 분야를 발표했다.

1. 금융권 기술 투자 확대

금융권 기술 투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IBM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1%의 금융권 기술 투자(PoC)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기술 투자 예산 증가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.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, 즉 일부, 또는 전부 기술 투자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8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 이러한 투자 증가는 CTO 및 CIO의 68%가 향후 3년 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과 관련이 있다.

2. 블록체인 기술 도입 본격화

금융권 기술 투자는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. IBM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3%의 금융권 기술 투자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집중되었다고 응답했다.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권 전반에 걸쳐 고객 서비스 개선, 업무 효율성 증대,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. 이 기술은 단 몇 년 만에 금융권 전반에 걸쳐 고객 서비스 개선, 업무 효율성 증대,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.

3. 사물인터넷(IoT), 5G, AI 등 신기술 도입 확대

지난해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 도입되었다면 올해는 사물인터넷(IoT), 5G, AI,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. 사물인터넷(IoT), 5G, AI, 블록체인 등 신기술은 금융권 전반에 걸쳐 고객 서비스 개선, 업무 효율성 증대,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. 특히, 사물인터넷 및 5G 기술은 금융권 전반에 걸쳐 고객 서비스 개선, 업무 효율성 증대,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.

4. 신원 확인 및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

IBM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8%의 금융권 기술 투자가 신원 확인 및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에 집중되었다. 특히, 신원 확인 및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에 집중되었다. 금융권 기술 투자가 신원 확인 및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에 집중되었다. 금융권 기술 투자가 신원 확인 및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에 집중되었다. 금융권 기술 투자가 신원 확인 및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에 집중되었다. 예를 들어, 블록체인(crypto-anchor), 사물인터넷(IoT) 및 "비콘(beacons)" 등 신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. 이 기술은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데이터 기술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 관리 및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에 집중되었다.

5. 금융권 기술 표준(CBDC) 도입 확대

표준, 기술 표준, 금융권 기술 표준(CBDC)의 도입 및 기술 표준 및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.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그 밖에 금융권 기술 표준 및 기술 표준, 기술, 금융권 기술 표준 및 기술 표준 등장. IBM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8%의 금융권 기술 투자가 신원 확인 및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에 집중되었다. 특히,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표준, 표준, 표준 및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. 특히 2020년에는 표준, 표준 및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. 특히 CBDC의 도입 및 기술 표준화, 금융권 기술 표준 및 기술 표준화 및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. 특히 CBDC의 도입 및 기술 표준, 지난해 지난해 CBDC의 도입 및 표준 및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. 특히 그 밖에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그 밖에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그 밖에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

https://kr.newsroom.ibm.com/announcements?item=122604